

The Builder II.

마음의 힘이 있어야 세워갈 수 있습니다.

1. 비전의 중요성

건축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이다. 설계도는 건축하고자 하는 그림이 구체화된 것을 말한다. 생각이 형상화(Imagination)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세워 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설계도'를 비전으로 주신다. 또한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 안에서 구체화된다.

설계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었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설계도'를 그렸다. 다윗의 설계도는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였다.

[역대상 28:12]

12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와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2 He gave him the plans of all that the Spirit had put in his mind for the courts of the temple of the LORD~.

다윗이 그린 설계도의 원리가 있다. 다윗의 설계도는 영감으로 그려졌다는 것이다. 영감은 하나님의 생각이 비전으로 사람의 생각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the Spirit had put in his mind)

2.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이 이 땅에 현실이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1)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 바라는 것은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말씀은 언약이다. 즉, 성취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갈망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말씀의 기본적 속성은 '예언적'이다. 구약의 사건을 보라.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적으로 선포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황폐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과정들을 보라. 공통점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황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쏟아낸다. 선지자들이 불을 쏟아내듯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낸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정렬된다. 예수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다. 이 말은 '눈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이지 않았던 영역을 보게 되는 것이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그 일이 '생각' 안에서 구체화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에 힘이 생기는 상태가 '의지'이다. 의지는 '뜻'이 세워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의지'는 '결단'을 만든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 마음에 힘이 생겨남 - 의지로 나타남 - 의지는 결단이 되고 결단은 행동이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다. 마음에 힘이 생겨난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낙담되고 침체된 마음도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언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9:10] ‘~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떠졌다는 것이다. 눈이 떠졌다는 것은 소망이 생겨난 것이다. 소망을 붙잡을 때 마음에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절망과 낙담은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붙잡을 힘이 없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옮겨온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마음에 힘이 생겨났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붙잡고자 하는 힘이 생긴 것이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으로 심령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

‘아, 나도 내 가족도 치유될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살아날 수 있구나’ 에 대한 마음이다. 예수님의 증언(말씀)은 예언의 영이 된다는 말씀이 놀랍다.

(2) 건축자의 마음

오늘 우리 안에 ‘마음힘’이 필요하다. 그 마음이 내 생각 안에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그린다. 마음의 힘이 ‘열정’이 되어야 한다. 열정이 바로 건축자의 마음이다. 세워내겠다는 마음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다. 열정을 가진 자가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열정이 ‘사명’이 된다. 청지기의 마음이다. 주인이 부탁하신 일을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기쁨’이다. 기쁨은 열매를 본 상태를 말한다.

‘아~ 이 일이 정말 되는구나.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는 구나’ 하나님의 일이 땅에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3) 마음의 힘을 주는 사람

[느헤미야 2:17-18]

17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18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포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느헤미야의 마음의 다짐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먼저 재건했다. 그리고 다짐이 비전이 되어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재건되었다. (18절-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이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에 힘을 주었다.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소망의 비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일으킨다. 마음의 힘이 결국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